

올해 'K-푸드+' 수출액, 62억1000만弗... 농식품 성과 견인

농식품, 47.7억弗... 6.7% 증가세 SNS서 매운 라면 챌린지로 입소문 中·美서 각각 누적수출액 1억弗 돌파 쌀가공식품, 41.4%로 최고 증가율

올해 상반기 이른바 'K-푸드+'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이 62억 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특히 농식품(K-푸드)이 47억7000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농식품의 주요 수출대상지는 미국, 중국, 일본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소비 지출이 견조하여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채널 입점,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난 5월 싱가포르의 한 식품박람회장에 자리한 한국관의 모습 /농식품부

중국 내 소비심리가 전천후 회복되면서 지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일본은 작년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지속적인 엔저와 일본 내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감소해 3위 수출 시장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기타 권역별로는 유럽,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10% 이상

의 성장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이다. 32.3% 증가한 5억9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기록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운맛 라면 챌린지가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이 퍼졌고, 현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출이 가속화했다. 특히 K-라면의 최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온라인 채

널 입점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6월 말 기준 누적수출액 1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유럽으로의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상반기 기준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다.

전년동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1억

3000만 달러 상당이 수출돼 41.4%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냉동김밥 등 가공밥은 글루텐프리 건강식·간편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인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동물용의약품은 수출은 지난 5월 말까지 8.2% 성장했다. 특히, 백신은 파키스탄 및 알제리 등 신흥시장에 제품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농약 수출은 지난해(+103.2%)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지속하며 109.3% 성장했다. 브라질, 중국, 베트남 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K-푸드+ 수출이 지속 성장해 올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국내 수소버스 1000대 도달... "2030년까지 2만대 보급"

주행거리 500km, 급속충전 20분 통근·공항버스 등 전환수요 발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목표

정부는 이번 주 내에 국내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소버스는 지난 2019년 6월 1호차가 경남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됐다. 환경부는 이달 첫째 주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길다. 또 충전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버스 급속충전이 1시간인 데 반해 수소버



저상(시내)버스, 일렉시티 FCEV.

스 15~20분이면 된다.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 및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8년 11월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고상(광역)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환경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에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발족해 수소버스 등 수소 상용차 보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왔다. 서울(7대), 광주(6대), 울산(3대), 창원(5대), 아산(4대), 서산(5대) 등 총 30대이다.

정부는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전국버스연합회, 물류협회, 수소버스 제작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다.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정책간담회(2023년 3월)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세미나(2024년 5월) 등이다.

또 기업 통근버스, 공항버스, 통학버스 등 다양한 수소버스 전환수요를 발굴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5월) ▲서울 수소 공항버스·시내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2023년 6월) ▲인천 수소 통학버스 전환 업무협약(2023년 7월)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액화수소충전소와 대용량 기체수소충전소 등 수소 상용차용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다량의 수소를 소비하는 수소버스 보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올해 4월 17일) 준공을 비롯해 연내 액화수소충전소 40기 구축 등을 목표로 세웠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포함, 수소차 3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생산·공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버스 제작사 및 운수사, 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지자체 등 모두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쿠팡, 배송위탁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 해

근로복지공, 539개소 대상 전수조사 누락보험료 47.3억, 과태료 2.9억 부과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

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라인 고용서비스, '고용24'로 한 번에"

고용부-고용정보원, 앱 시범운영 지원자격 사전진단 등 이용 가능

앞으로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 앱을 지난 6월 19일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기간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고용24를 사용하면 한번의 로그인으

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한 앱으로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다.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